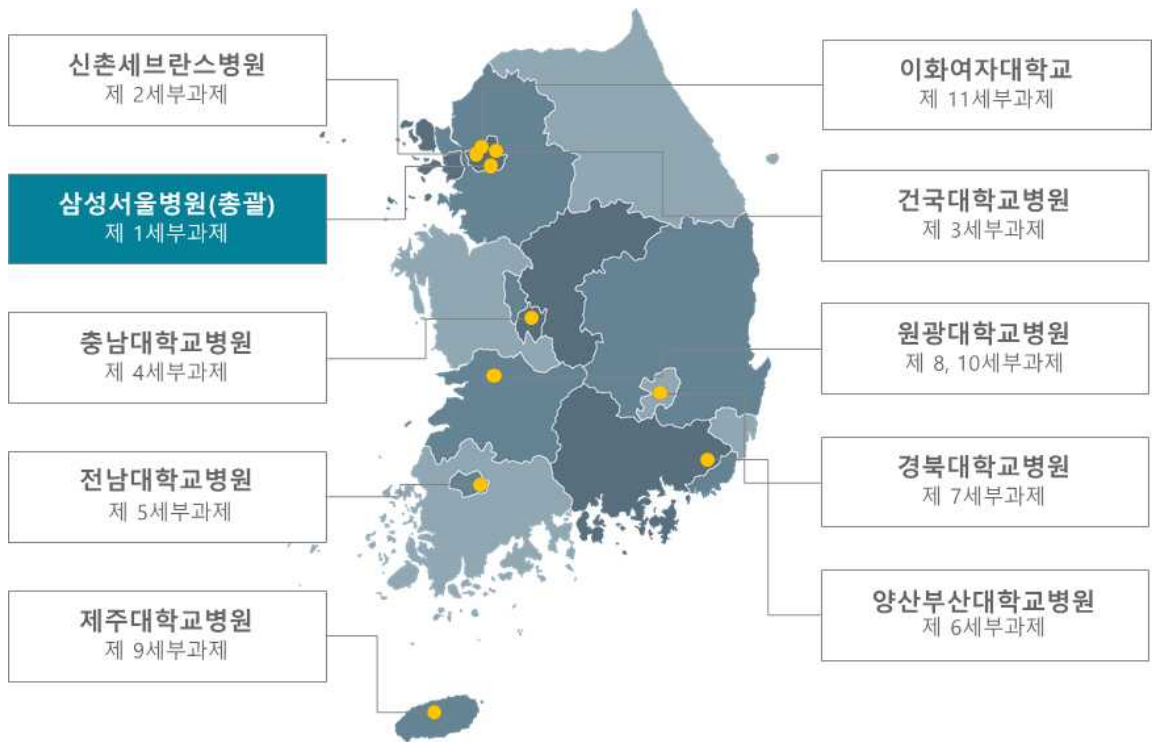


1

뇌졸중 재활분야 장기적 추적조사연구

-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2년부터 전국의 11개 대학병원 및 대학교가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뇌졸중 환자 장기추적 정책용역 연구 (연구책임자: 성균관대학교 김연희 교수)인 “**뇌졸중 환자의 재활분야 장기적 기능수준 관련요인에 대한 10년 추적조사연구 (KOSCO)**” 를 실시 중이다.
- KOSCO는 2012년 8월 2015년 5월까지 전국의 9개 대학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한 모든 초발 급성뇌졸중 환자 7,858명을 대상으로 ‘**1단계 뇌졸중 재활 코호트 연구**’ 를 시작하였으며, **발병 후 10년까지** 전향



〈그림 1 뇌졸중 환자 장기추적조사연구(KOSCO) 참여기관  
적 방법으로 매 3~6개월 마다 기능상태를 추적 조사하여 뇌졸중 환자의 장기적 후유장애, 활동제한, 재활치료 여부 및 삶의 질 변화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 국가 뇌졸중 관리 대책 수립에 활용할 자료를 도출하는 목적으로 진행 중인 전향적 코호트 연구이다.

- KOSCO는 2016년부터 ‘2단계 뇌졸중 재활 중재연구’ 를 진행 중이며, 이를 통해 뇌졸중 재활 중재(운동중재, 인지중재, 언어중재, 교육중재)의 장기적 후유장애, 활동제한 및 삶의 질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평가 및 경제성 분석을 진행 중이다.